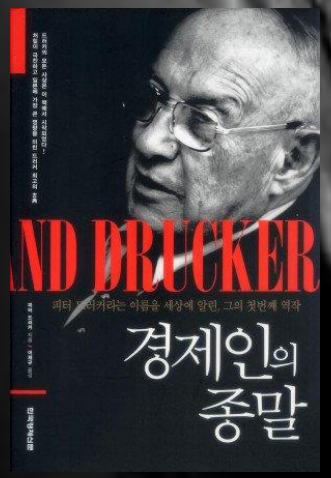
#7

피터드러커의

THE END OF ECONOMIC MAN

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

경제인의 종말



PETER F.DRUCKER
SOCIETY OF KOREA

전체주의
: 기적인가 신기루인가?



전쟁과 평화

군국주의에서 전쟁이 차지하는 역할

군국주의 ▶ 전쟁을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

- 만약 전쟁이 목적으로 수용된다면? 민주주의, 사회주의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것 처럼,
  "파시스트"국가 생성

- 군국주의에서 역할과 위치

전쟁에서 역할과 위치 = 사회에서 역할과 위치

전쟁과 평화

히틀러(독일 정치가)와 무솔리니(이탈리아 정치가)의 사회·정치적 체계

▶“영웅적 인간“

※ 영웅적 인간을 숭상하고 부르주아의 퇴폐적 삶을 비판



베니토 무솔리니

“위험하게 살아라“

“우산속의 부르주아“



아돌프 히틀러

전쟁과 평화

유일한 '전체주의' 철학자 융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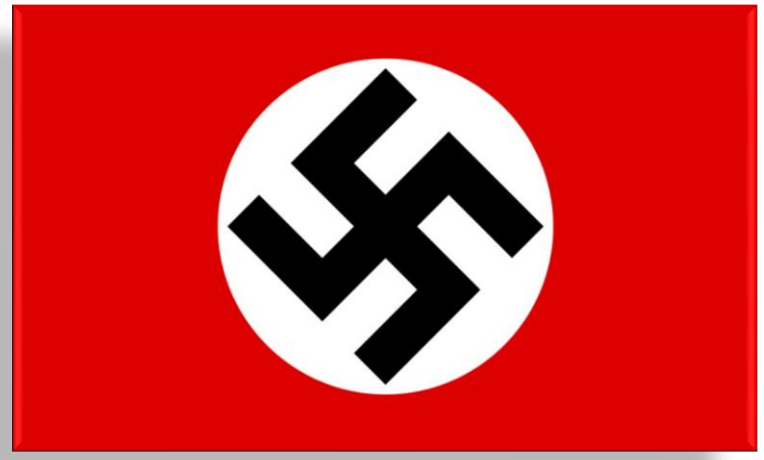
- 무명의 노동자, 병사는 새로운 인간 개념의 근본적 상징
- 육체적 고통과 그것을 견디는 능력은 새로운 가치 질서의 토대

현대의 표상
=
노동자

진정한 노동자
=
전쟁터에서 희생하는 영웅적 전사

전쟁과 평화

희생의 승화



"파시즘"

영웅적 인간의 중심이론은



<u>개인의 희생</u>을 스스로 <u>정당화</u> 하는 것

Ex) 랑게마르크 전투 #1917 #독일 학도병이 영국 저격수와 싸워 거의 전멸한 사건



▶ 비판점 : 지휘관들의 작전 실패를 **'순수한 희생'** 으로 미화

PETER F.DRUCKER
SOCIETY OF KOREA

성스러운 전쟁



위협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목적으로

이탈리아 ▶ 앤터니 이든(영국의 외교장관)을 '사악한 세력'으로 몰아붙임

독일(히틀러) ▶ 군비확장과 전쟁준비를 외부세력의 '음모'로 몰아붙임

※ 파시즘 : 적들에 대한 박해를 군국주의의 '실체'로 취급

외부의 반대세력에 대한 전쟁은
야망성, 폭력, 기만을 허용할 뿐 아니라 "성스러운 임무 " 임

반유대주의 원인

유대인을 차별한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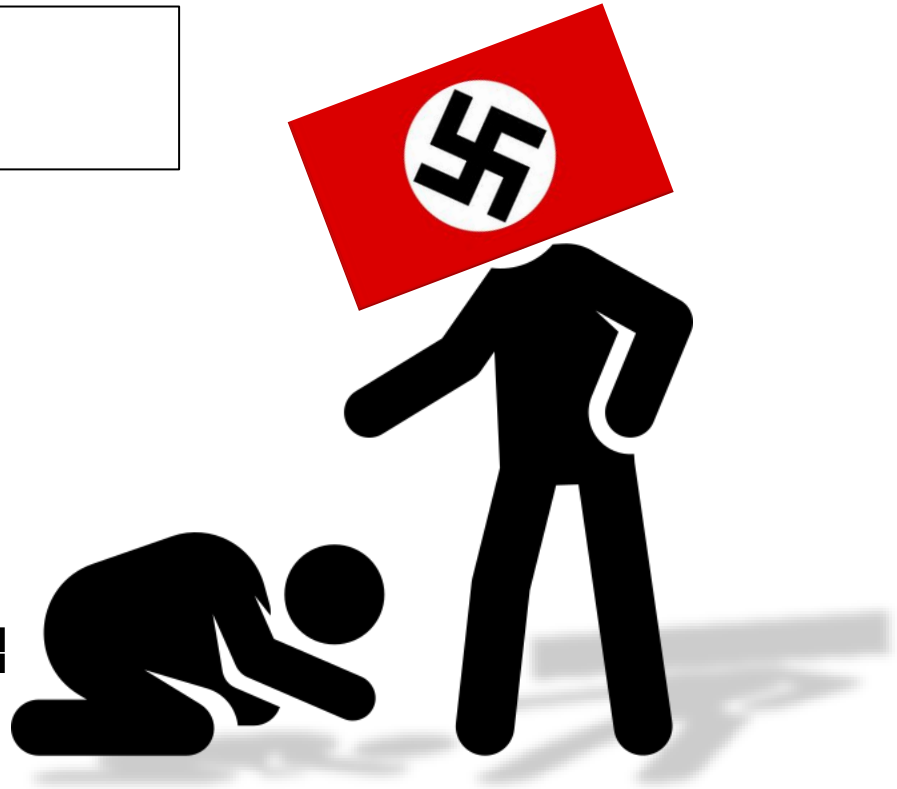
제 1차세계대전 이전 (히틀러 이전)

▶ 유대인에 대한 '인종적 차별'은 없었다.

- 독일안에서 성공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,

  유대인종은 열등한 인종이 아니라고 믿는 독일인이 多

- 독일 유대인들은 독일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김



반유대주의 원인

유대인을 차별한 이유

① 경제적 질투심이었다. (X)

→ 유대인들은 제거한다고 해도 경쟁자(독일인)들에게 매출 증대 X

② 유대인들이 나치즘을 반대하였다. (X)

→ 유대인들은 나치즘을 원래부터 반대하지 않음

(이탈리아 유대인의 파시스트당 지원)

③ 유대인은 희생양으로 쓰였다. (O)

▼ 나치 유대인 수용소



부르주아 자본주의의 화신으로서 유대인

유대인과 부르주아 계급의 일치

- **비유대인 부르주아와 유대인의 일치**

비유대인 부르주아와 유대인은 같은 차별을 받음

▼

비유대인 부르주아와 유대인의 내부 단합이 유지됨

▼

교제가능대상 인정, 통혼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

▼

유대민족의 쇠락 (순수 유대인 거의 사라짐)

▼

“유대인과 교류하는 것은 부르주아의 고유 특성이 됨”

(유대인 차별의 근간)

부르주아 자본주의의 화신으로서 유대인

유대인과 부르주아 계급의 일치

- 비유대인 부르주아와 유대인의 일치

▼

1차 세계대전이후, 부르주아들의 경제적 지배가 실업,불황을 가져옴

▼

책임을 '유대인'들에게만 덮어씌움

▼

유대인을 희생양으로 만듦

- 시온 의정서 (반유대주의 구실과 논거역할을 한 위조문서)

부르주아 자본주의의 화신으로서 유대인

이탈리아의 반프리메이슨과 독일의 반유대주의

독일의 수단 = 반유대주의

반프리메이슨 = 이탈리아의 수단
(이탈리아는 유대인의 비율이 낮음)



▶ 무솔리니는
'사회적 실체를 부여 못한 무능력에 대해 정당화 하기위해
외부의 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.'

▶ '인종차별 정책 ' 도입 (=반프리메이슨)

부르주아 자본주의의 화신으로서 유대인

가톨릭 교회와 나치즘

***"로마 정교조약"**



▶'피우스11세가
독일 가톨릭 교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
히틀러의 나치 정부와 맺은 조약'

→ 하지만, 나치의 인종차별과 파시스트 이탈리아로 조약에 충돌 有

나치가 가톨릭을 배반했던 이유
∵ 가톨릭을 믿는다면, 나치의 신조와 사회는 의미 無

조직이 전부이다

조직이 전부일 때 문제점

① '조직과잉'* 발생

② 최고의 지도자를 제외하고 국가 전체의 운영체계, 재정상태를 모름

③ 작은 문제 발생 시 극도로 심각한 혼란 야기

④ 부하들의 자발적, 주도적 수행 능력 ↓

* 조직과잉 = 조직 그 '자체'를 목적으로 설정하여 지나친 중앙 집권화가 된 상태

조직이 전부이다

독일 조직과잉의 사례

- 철도 운행 (사고 발생 시 상부명령이 올때까지 운행지연)
- 마르느 전투 (독일 최고 사령부와의 연락 두절로 혼란하여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)



즉, '계획대로 움직이는 한 엄청 잘 돌아가지만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모든 것이 궤도를 벗어남

PETER F.DRUCKER SOCIETY OF KOREA

지도자 원칙

무오류

(전체주의) 지도자 = “언제나 옳다.” (무오류)

▶ 지도자의 지위는 바깥에 있고 사회를 초월

카리스마

1) * 카리스마= ‘신이 내린 능력’

과거 지도자 ▶ ‘사회적 재가 ' 받음

전체주의 지도자 ▶ ‘사회적 재가 ' 받지 않음



▼ 카리스마의 대표 히틀러

과연, 보통 사람들을 초월하는 ‘카리스마’가 존재하는가?

지도자 원칙

2) 저자 피터 드러커에게 카리스마란?



→ ‘악마적인 카리스마’ (부정적)

“ 나폴레옹, 히틀러, 스탈린 등 카리스마적인 리더는

궁극적으로 인류에 **재앙**을 준다. ”